

조선 17세기 전반의 ‘假畫龍樽’

송인희

I. 머리말

宋仁熙

충남대학교 강사
이화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
박사과정 수료
한국 도자사

조선시대 도자사 연구에서 17세기 전반기에 관해서는 주로 왜란과 호란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관요의 상황과 그로 인한 요업 활동의 마비 등의 현상이 집중적으로 다루어졌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연구에서는 양란 이후 요업 활동의 성패 자체나 제도사적인 측면에만 주목해왔으며, 그로 인해 이 시기의 상황이 조선 전기와 후기에 보이는 도자의 제작과 사용상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가교이자 전환점으로써 갖는 중요성이 간과되어 왔다. 그리고 이러한 전환적 측면에서 특히 새롭게 주목되어야 할 부분은 17세기 전반의 왕실행사 기록을 통해 그 존재가 알려졌다나 아직까지 제대로 접근된 바 없었던 ‘假畫龍樽’에 관한 것이다.

‘가화용준’은 임란 이후 연향 등의 주요한 왕실 행사에 문양자기인 ‘畫樽’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용되었던 것이다. 기록에 따르면 ‘가화용준’은 당시 청화백자 제작을 위한 청화 안료의 취득이 어렵게 되자 이를 대신하여 사용되었으며, 수 년에 걸쳐 몇 차례의 기록에 등장하고 있다.¹ ‘가화용준’이 지칭하는 바에 대해서는 무문백자

* 필자의 최근 논저: 「대한제국기 황실용 백자 이화문 양식기에 관한 연구」, 『김홍남 교수 정년퇴임 기념 논문집-동아시아의 궁중 미술』, 한국미술연구소, 2013; 「대한제국기 황실공예품에 나타난 李花文의 변화」, 『역사와 담론』 67, 2013, 7; 「조선 17-18세기 철화백자의 특징과 성격: 가마터 출토품을 중심으로」, 『미술사학연구』 267, 2010, 9.

¹ 『光海君日記』, 光海君 10年(1618) 閏4月 3日 辛酉條; 『承政院日記』, 仁祖 4年(1626) 閏6月 13日 癸丑條; 『承政院日記』, 仁祖 12年(1634) 5月 18日 癸卯條: 본고에서 인용한 『朝鮮王朝實錄』과

에 문양을 그려 넣었거나,² 종이나 비단에 그린 그림을 백자에 부착했거나 초벌구이에 먹과 안료로 문양을 그린 후 재번조 없이 사용했을 것으로 후자의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되어 왔다.³ 그러나 이러한 추정들은 ‘가화용준’이 언급된 기록들에 한정된 단편적인 추정들에 불과하며 각각의 구현 가능성에 관하여 본격적인 고찰은 시도된 바 없었다.

본 연구는 여러 차례 기록에 등장하며 왕실용 고급 공예품의 하나로 여겨졌던 것이 분명하나, 이제껏 제대로 부각되지 못했던 ‘가화용준’에 주목하여 그 실체와 중요성을 규명하려는 것이다. 먼저, 새롭게 확인된 기록들을 포함하여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가화용준’을 둘러싼 당시 상황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기존에 단편적으로 제시된 견해들도 조선 왕실의 전반적인 공예품 인식과 사용 경향 안에서 재검토되어야만 그에 대한 현실적인 가능성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가화용준’의 출현과 사용은 우선적으로 17세기 전반의 시기적 특수성에 근거한다. 그러나 이것이 일종의 중간적 단계로 그 목적과 지향이 뚜렷하며, 나아가 조선 전기와 후기를 잇는 연속선상에서 나타난다는 점에서도 ‘가화용준’은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그러므로 그에 대한 규명의 노력은 조선시대 왕실용 공예품에 대한 보다 실제적인 이해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承政院日記』의 원문 및 번역문은 기본적으로 고전번역원의 한국고전번역데이터베이스와 국사편찬위원회의 조선왕조실록 및 승정원일기 전자판을 활용했으며, 번역문의 경우 필요에 따라 단어나 용어 등에 한해 수정을 가했다.

- 2 “임진왜란 직후인 17세기 초에는…이 시기 용준으로는 완성된 素文白磁의 표면에 문양을 그려 넣은 것으로 추정되는 ‘假書’…”, “‘假書’가 무엇인지 알 수는 없으나, 實錄에 ‘잘 벗겨지는 페단이 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적어도 上繪(釉上彩)와 같은 磁器式 施文技法은 아닌 것 같다.” 장기훈, 『朝鮮時代 白磁龍樽의 樣式變遷考』, 『미술사연구』12(1998), p.97 및 주33의 ①; “청화안료의 취득뿐 아니라 분원 내의 상황으로 인해 자기의 제작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다시 가화의 사용을 청하는 예가 있어 가화의 의미에 초벌 및 재벌 번조와 같은 작업 공정이 전제되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이러한 내용을 통해…무문백자 위에 안료로 문양을 그려 사용하는 것을 가리킬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된다.” 송인희, 『朝鮮 17~18世紀 鐵畫白磁 研究』(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p.5 주13.
- 3 “각종 연례에 청화백자가 필요할 때에는 가화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가화는 두 가지로 추정 가능하다. 첫 번째는 종이나 비단에 그림을 그려 이를 백자 항아리에 부착하여 화준으로 대신 하는 경우다. 두 번째는 초벌구이한 항아리에 청화안료가 아닌 일반 먹과 안료로 그림을 그린 후 굽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이다. 후대 인조 연간의 기록을 보면 가화 용준 운반 시 문양이 뭉개지고 닳는다고 되어 있어 두 번째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방병선, 『왕조실록을 통해 본 조선도자사』(고려대학교출판부, 2005), p.171.

II. ‘가화용준’의 출현과 사용

조선시대에는 왕조 초기부터 명분과 질서를 중요시하는 유교적 예론에 따라 고급 공예품의 제작을 통제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기물의 재질과 종류, 형태 등에서 사용자의 위계에 따라 구별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⁴ 공예품의 문양 시문과 색채의 사용 역시 이러한 엄격성 안에서 제한되었는데, 왕실의 여러 행사에 사용되는 각종 물목이 기록된 의궤에서는 사용자에 따른 재질의 구분 외에도 문양이 시문된 기물이 기본적으로 왕실 내 위계가 높은 사용자를 위한 것이었음을 살필 수 있다.⁵ 특히 용을 시문하는 것은 주로 왕의 권위와 상징을 위한 것으로, 왕의 의복이나 龍床, 御駕, 깃발 등에 채용되었으며 왕이 참석하는 행사에 사용되는 공예품이나 중국에 진헌하는 물품에도 주요하게 활용되었다.

이러한 왕실용 공예품 중 백자 항아리에 용 문양을 시문한 ‘龍樽’은 의례기로 서 그 제작과 쓰임에 특수성이 나타나 주목되어 왔다. ‘용준’에 관하여, 『국조오례의서례』에서는 俗祭에 사용한다고 하였으며,⁶ 그 쓰임에 대해서는 술이나 꽃을 담았을 것으로 추정되었다.⁷ 이는 조선시대 각종 의례와 친찬·진연도에서도 나타나, 왕이나 왕세자가 주최하는 연향에서 주빈에게 대접할 술을 담아두거나 여좌를 장엄하는 樽花의 花器로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⁸ 이러한 용준의 사용은 기본적으로 왕실 내 최상위 계층을 위한 것으로, 다음의 기록에서도 그 일면을 살펴볼 수 있다.

승지 등이 아뢰기를, “뭇쌀은 다만 供上에만 쓰는 것이요, 아랫사람들에게는 쓸 수 없습니다. 전일에 또 화룡준을 내려주라고 명했으니, 신 등은, 중국 사신이 올

⁴ 조선 초기 공예정책의 예론적 이념성에 관해서는 최공호, 「朝鮮初期의 工藝政策과 그 理念」, 『美術史學研究』194·195(1992) 참조.

⁵ 장경희, 「朝鮮王朝 王室嘉禮用 工藝品 研究」(홍익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pp.44-47.

⁶ “畫龍沙尊俗祭用之…”, 『國朝五禮儀序例』, 吉禮 祭器圖說 尊.

⁷ 준의 실제 용도에 대해서는 먼저, 청주와 현주 등을 담았거나(안성희, 「朝鮮時代 白磁祭器 研究」(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p.46), 大祭를 마친 뒤의 飲福宴 때 왕의 御酒를 담는 용도로 이용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제기된 바 있다(궁중유물전시관, 『종묘대제문물』(2004), p.56). 또한 속제 외에도 大喪 시에 사용되었을 것이라는 견해도 제시되었으며(윤용이, 『韓國陶器史研究』(문예출판사, 1993), p.457), 술을 담는 용도뿐 아니라 꽃을 꽃아 장식하는 용도로도 추정되었다(장경희, 앞의 글(1998), p.48 및 장기훈, 앞의 글(1998), pp.89-89).

⁸ 왕실 의례에서 꽃을 담는 용도로 사용된 화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신승인, 「朝鮮後期 王室 宴享用 白磁 花樽 研究」(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참고.

때에도 오히려 쓰지 않는 것인데, 하물며 공주의 집에 하사할 수 있겠는가 생각했습니다. 대체로 공주의 집에는 비록 이와 같이 하지 않더라도 나중에는 장차 사치와 분수에 넘치는 폐단이 있을 것인데, 하물며 하사하는 것이 이와 같을 수 있겠습니까? 신 등이 이 두 가지 물건을 아끼는 것은 아니나, 등급이 분별없게 될까 염려스럽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렇다면 하사할 필요는 없다.”⁹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용준은 주로 청화백자로 제작되었으며, 이를 위한 청화안료의 수급 문제는 국내에서 청화백자가 제작된 이래 국가적인 차원의 현안이었다.¹⁰ 조선 전기 이래 청화안료는 사행무역을 통해 구입되었고,¹¹ 안료가 확보되면 분원에 화원을 직접 보내어¹² 용준을 제작하도록 하였다.¹³ 그러나 임진왜란을 겪고 난 17세기 초에는 아래와 같은 1602년의 선조대 기록에서 보이듯 국가 상황이 황폐하여 왕실의 중요 행사를 위한 공예품 제작이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헌부가 아뢰기를, “난리 뒤에 국가의 저축이 탕갈되어 모든 응용하는 물품을 대가를 주지 아니하고 시장 백성에게서 거두어 쓴 지 오래 되었습니다. 간신히 살아 남은 시장 백성이 재산이 파탄되어 이미 극도로 곤궁한 상황은 위에서도 반드시 통촉하고 계실 것입니다.”¹⁴

이에 용준의 제작 역시 여의치 않은 상황이 광해군대에도 지속되었는데, 당시 물력의 부족 외에 가장 어려운 문제는 청화안료를 구할 수 없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이 무렵 청화안료의 취득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면서도 용준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9 “承旨等啓, 梗米只用於供上, 不可用於下也. 向又命賜畫龍樽, 臣等意, 天使時尚不用, 況賜公主家乎. 凡公主之家, 雖不若此, 末流將有奢僭之弊, 況賜與若此乎. 臣等非愛此兩物, 將恐等威無別也. 傳曰, 然則不必賜也.” 『燕山君日記』, 燕山君 8年(1502) 10月 29日.

10 윤효정, 「朝鮮 15・16世紀 靑畫白磁 研究」(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pp.15-33.

11 “啓曰, 畫員李季眞曾受公賈易回回靑價, 黑麻布十二匹, 而卒不買來, 令本府徵其本色, 因家僮累及數百名. 而季眞不能納者, 以回回靑, 非我國所產, 亦非民間所用, 季眞雖至死, 不能納必矣. 請勿徵本色, 以黑麻布倍徵何如.” 『成宗實錄』, 成宗 19年(1488) 1月 23日.

12 “每歲司饗院官率畫員, 監造御用之器…”, 『新增東國輿地勝覽』卷6, 京畿道 廣州牧 土產條.

13 “隆慶四年夏, 舅監察文公. 爲官司甄, 分監沙器, 廣州地也. 畫工二人從, 禮部遣爲龍樽也.” 李魯(1544~1598), 『松巖先生文集』卷3, 雜著 畫記 庚午(1570).

14 “憲府啓曰, 亂後國儲蕩竭, 凡百應用之物, 不給價取辦於市民者, 久矣. 予遺市民, 傾財破產, 已極倒懸之狀, 自上亦必洞燭矣.” 『宣祖實錄』, 宣祖 35年(1602) 2月 14日.

고안된 방법이 바로 ‘가화용준’을 사용하는 것이었다.

사용원이 아뢰기를, “조정의 연향 때 사용하는 화준이 난리를 치른 뒤로 하나도 남아 있는 것이 없으므로 늘 푸른 채색을 사다가 구워내려고 했습니다만, 사올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연향하는 禮가 있을 때마다 어쩔 수 없이 假畫를 사용하는 등 사체로 볼 때 구차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 현감 박우남이 화준 한 쌍을 바치고 싶다 하기에 그 뜻이 가상해서 살펴보았더니, 두 단지 모두 뚜껑이 없고 하나는 주둥이에 틈이 벌어져 붙여놓기는 하였습니다만, 술상의 분위기를 빛내줄 만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원에 놔두고 뒷날의 용도에 대비케 하는 것이 온당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일찍이 수령을 지낸 사람이니 그에 상당한 수령으로 올려 제수하고, 단지 뚜껑을 속히 구워내는 일을 의논해 처리토록 하라.” 하였다.¹⁵

1618년에 나타나는 위의 기록은 왕실의 연향에서 ‘가화준’의 사용이 확인되는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이지만, 내용에 따르면 그 실제 사용은 기록의 시점보다 앞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1618년 당시 부족하나마 진헌된 화준이 있다고 하였으므로, 적어도 이때와 이후 얼마간의 연향에는 청화백자가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왕실용 의례에서 ‘가화용준’은 1618년 이전부터 이미 사용되기 시작하여, 이후로도 청화백자의 부재 시 필요에 따라 활용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가화용준’은 본래 청화백자로 제작되던 용준을 대신하려는 것이었으므로, 청화백자 용준을 구하려는 노력은 17세기 전반에 걸쳐 계속되었다. 일례로, 1619년에는 다음과 같이 중국으로부터 청화안료를 무역해온 기록이 확인되기도 한다.

회회청을 무역해 오는 일로 전교하였다. “이 채색에 대해 명을 내린 지 여러 해가 되었으나 무역해 올 뜻이 없었는데, 이홍규가 마음을 다하여 무역하여 들여왔으니 매우 가상하다. 참작하여 시상하도록 하라.”¹⁶

¹⁵ “司饗院啓曰, 朝家宴享所用畫樽, 自經亂後, 蕩無遺在, 每欲貿青燐造, 而絕無貿易之路. 遇宴禮, 不得已假畫而用之, 事體殊甚苟簡. 今者前縣監朴鵬男, 將畫樽一雙願納, 其意可嘉. 看審則兩樽皆無蓋, 一樽之口, 雖有罅缺粘付, 而可貢酒亭, 留置本院, 以備他日之用宜當. 傳曰, 曾經守令之人, 相當守令陞授. 樽蓋速爲燐造事, 議處”, 『光海君日記』, 光海君 10年(1618) 閏4月 3日.

¹⁶ “(己未四月十七日)庚午以回回青貿來事 傳曰, 此彩色, 命下累年, 無意貿來(矣), 而李弘軾盡心貿來, 極爲可嘉, 參酌施賞”, 『光海君日記』, 光海君 11年(1619) 4月 17日: 인용된 원문의 괄호 부분은

청화백자 제작을 위해 안료를 무역해오려는 노력이 이 무렵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은 위의 기록뿐 아니라, 앞서 살펴보았던 1618년의 기록에서도 거듭 언급되고 있는 내용이다. 이에 1619년 당시 북경에 다녀온 사신단의 수행 화원이었던 이흥규가¹⁷ 기존의 무역방식에 따라 해당 안료를 겨우나마 구입해왔던 것인데, 이것이 왕명으로 특별히 시상할 만큼 큰 공로로 인정받은 점에서도 그 중요성이 상당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안료의 취득 외에도 비슷한 시기 왕실용 청화백자 용준을 구하려는 노력은 완성품의 청화백자를 구하는 식으로도 모색되었으며, 이는 앞서의 1618년 기록과 함께 이후 1622년의 기록 가운데에도 화룡준을 진상한 자가 있어 사옹원의 청으로 논상하는 내용이 보인다.¹⁸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이 당시 계속되던 청화백자 용준의 부족을 완전히 해소한 것은 아니었으며, 인조대 반정 등의 혼란으로 용준이 손실되고 도자 제작 여건도 여전히 여의치 않은 상황에 처하자 1625년의 다음 기록에서와 같이 ‘가화용준’이 다시 사용되기에 이른다.

사옹원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劉·楊 천사가 나왔을 때와 梁 감군을 접대할 때 사용한 사기는 영접도감이 전적으로 말아서 태평관에 보관해 두었는데, 年前 (원문 빠짐) 사기장이 전혀 오지 않으므로 이 때문에 물력이 부족하여 천사를 연향할 때 필요한 사기를 넉넉히 구워 만들 수가 없습니다. 만약 전처럼 납부하라고 독촉한다면, 형편상 마련할 겨를이 없을 것이니 매우 답답하고 염려스럽습니다. 도감으로 하여금 전일 창고에서 사기를 내주는 것을 맡아보던 사람에게서 죄다 가져다 쓴 뒤에 부족한 수량만 본원이 그때 가서 수송하도록 승전을 받들어서 시행하게 해 주소서. 또 본원에 비축하여 둔 화룡준이 반정 때 깨진 관계로 매번 당차관을 접견할 때 가화를 썼으니 매우 구차한 형편이었습니다. (원문 빠짐) 조사를 접견할 때 가화를 쓸 수는 없으니, 만약 바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으면 각별히

기록의 내용과는 무관하나, 『광해군일기』 해당일자의 증초본에는 보이지만 이후의 정초본에는 보이지 않는다.

¹⁷ 사신단을 수행했던 화원 이흥규의 모습은 1607년 일본통신사 慶淵이 작성한 사행일록에서도 확인된다. 慶淵, 『海槎錄』下, 「回答兼刷還使同樣員役錄」 참조.

¹⁸ “李道吉獻畫龍尊, 王命論賞, 因司饗院請也”, 『光海君日記』, 光海君 14年(1622) 2月 16日: 1622년 화룡준을 헌상했던 이도길은 그 무렵 自如 察訪을 역임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경상도 창원 의 자여역을 중심으로 인근 역로를 관할하던 중6품의 외관직이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자여도 및 참방 항목 참조. 그러나 바로 다음 해인 1623년 인조 즉위 후에는 해당 직위로부터의 파직이 논의되었다. “慶尙監司書目, 義興縣監李麟瑞, 自如察訪李道吉罷職事”, 『承政院日記』, 仁祖 1年(1623) 10月 25日.

논상하는 사목을 만들어 여염집에 효유한 다음 있는 곳을 잘 살펴서 사들이도록 호조로 하여금 미리 거행하게 함으로써 그때 가서 흐지부지 되는 근심이 없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아뉘 대로 하라. 나라의 비축이 다 고갈되었으니, 비용을 줄이기에 힘써야 할 것이다. 용준은 가화를 쓰는 것이 무슨 해 될 것이 있겠는가. 사지 말고 전에 하던 대로 그러서 쓰라.” 하였다.¹⁹⁾

위의 기록과 앞서의 기록들을 함께 살펴보면, ‘가화용준’은 1618년 이전의 어느 시점부터 사용되었으나, 1619년 이후 1623년 사이에는 청화백자로 된 용준을 마련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즉, 앞서의 1619년 기록에서는 청화안료를 구해온 것이 확인된 바 있으며, 위의 1625년 기록에서는 천사 劉鴻訓과 楊道寅을 영접한 1621년과 양감군을 접대했던 1622년을 언급하는 가운데, 사용원이 그동안 비축했던 화룡준이 1623년 인조반정 때 깨어졌다고 한 것이다. 그러면서 재확인되는 ‘가화용준’의 사용은 이미 당시에는 청화백자에 대한 현실적인 대체 수단으로 당연시되는 모습을 보인다.

다만, 당시 가화용준의 사용이 ‘구차하고’ ‘부득이’한 궁여지책이었던 점은 분명하므로, 이때에도 ‘가화용준’을 임시방편으로 사용한 이후 다른 해결책에 대한 모색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1626년의 다음 기록에서 보이듯, 1625년과 1626년에 걸쳐 사신의 접대에 가화용준을 사용하면서도 동시에 완성품의 청화백자를 중국으로부터 무역해오거나 민간으로부터 얻으려고 하는 등의 방안이 끊임없이 강구되었던 것이다.

사용원 관원이 도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전년에 천사가 나온다는 기별이 있을 뒤에 연향에 사용하는 화준이 여염에 있는 곳이 있으면 보고 듣는 대로 구매하는 뜻으로 본원에서 계사를 올렸더니, 가화준을 쓰도록 전교하셨습니다. 때문에 두 해 천사가 나왔을 때 매번 가화준을 사용하였는데 혹 비에 젖기라도 하면 마모되고 번져서 모양새를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막중한 宴禮의 모양새가 보기에

¹⁹⁾ “又以司饗院提調意啓曰, 劉, 楊天使時及梁監軍接待時沙器, 迎接都監事掌次知, 藏置於太平館, 而年前【缺】沙器匠切不來現, 以此物力未敷, 天使宴享時沙器, 不得優數燔造. 若如前責納, 則勢未及周旋, 極爲悶慮. 令都監前日庫上沙器典授人處一一取用後, 只以不足之數, 本院臨時輸送事, 捧承傳施行. 且本院所儲畫龍樽, 反正時見破, 每次唐差官接見時, 以假畫用之, 勢甚苟且, 而不【缺】詔使接見時, 不可以假畫用之矣. 如有願納者, 各別論賞事事目, 曉諭于閭家, 有處聞見和買事, 令戶曹預爲舉行, 俾無臨時埋沒之患, 何如. 傳曰, 依啓, 國儲竭乏, 當務省費, 龍樽以假畫用之, 何傷乎. 勿爲和買, 依前畫用”, 『承政院日記』, 仁祖 3年(1625) 2月 14日.

민망하여 신들은 항상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원에서 사들여 올 값을 어렵게 마련하였으나 관질이 낮은 아문에서 중국에 가는 역관에 명령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엔 중국에 가는 사신 행차에 따라가는 事知譯官에게 사 올 값을 보내서 품질이 좋은 화룡준 한 쌍을 골라 사 오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운허한다고 전교하였다.²⁰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상황은 한동안 호전되지 않아, 이후로도 왕실의 여러 행사에서 용준의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1628년 소현세자의 가례를 준비하는 과정의 아래와 같은 기록에서도 확인된다.

사용원이 아뢰기를, “이번 왕세자 가례 때에 사용되는 화룡준을 진배할 적에, 만약 본원에서 화준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면 전일 연례와 천사 연향 때 매년 백준가 화를 사용하였으므로, 이번 가례 때에도 역시 당연히 가화준으로 진배하겠습니다.” 하고 상고하여 시행하였다.²¹

1628년의 『소현세자가례도감의궤』를 통해 보면, ‘가화용준’은 당시 사신 접대를 포함하여 왕실의 최상급 행사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사용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본고에서 새로이 다루고 있는 이와 같은 기록은 지금까지 가화용준의 사용 현황이 17세기 전반의 실록과 승정원일기의 사신 접대에 관한 기록을 통해서만 주로 알려져 온 것에 비하여, 그 실제적인 사용이 왕실 내에서 보다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한 것이다.

한편, 이처럼 청화백자 용준의 제작 또는 취득이 용이치 않은 형세가 계속되자 1634년에 이르면 가화용준 외에 또 다른 방안이 제시되었는데, 바로 아래 기록에서와 같이 석간주로 문양을 시문한 철화백자로 용준을 제작하는 것이었다.

사용원이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천사에게 연향을 베풀 때 소용되는 화룡준

20 “司饗院官員, 以都提調意啓曰, 前年天使先聲出來之後, 宴享所用畫樽, 閭閻間有處, 聞見買得之意, 本院啓辭, 則假畫用之事傳教, 故兩年天使時, 每以假畫用之, 或值雨濕, 則磨濃不成樣, 莫重宴禮, 所見埋沒, 臣等常懷未安, 自本院艱備貿易之價, 而秩卑衙門, 不能號令於赴京驛官, 請今番赴京使臣之行, 事知譯官, 授價以送, 品好畫龍樽一雙, 使之擇買以來, 何如, 傳曰, 允.” 『承政院日記』, 仁祖 4年(1626) 閏6月 13日.

21 “司饗院呈內, 今次王世子嘉禮時, 所用畫龍樽進排事是, 在果本院良中既無畫樽乙仍于前日, 本朝宴禮及天使宴享時, 段置每以白樽假畫行用是乎等, 以今次嘉禮時亦當假畫樽以進排爲去, 乎相考施行事”, 『昭顯世子嘉禮都監儀軌』, 仁祖 6年(1628) 9月 18日.

에 대하여 전일에는 가화용준을 썼는데 그것을 지고 왕래할 적에 그림이 벗겨지는 폐단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본원에서 값을 준비했다가 연경으로 가는 역관에게 주고 사 오도록 한 일이 비일비재하였습니다. 그런데 역관 등이 칭탈하고서 사 오지를 않아 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석간주로 起畫하여 화룡준을 구워 만들어 당차관을 접전할 때 모두 이것으로 썼습니다. 이번 조사를 접대할 때에도 이 화룡준으로 쓰겠습니다. 감히 아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²²

위와 같은 기록은 그 동안 ‘부득이’하게나마 지속적으로 사용되어 온 ‘가화용준’의 폐단이 부각된 이후에야 철화백자로 용준을 제작하는 방안이 고려된 것을 나타내며, 이 무렵 왕실용 의례기로 마침내 철화백자가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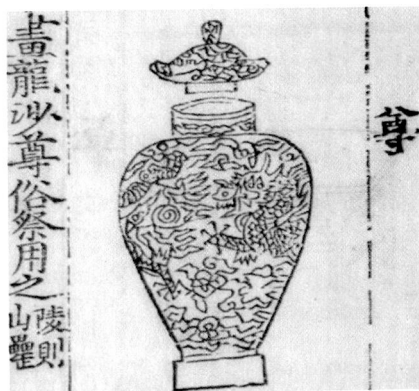
실제로 지금까지 이루어진 경기도 광주 관요 가마터 조사에서는 1620년대를 전후한 시점부터 17세기 전중반에 걸쳐 용 문양이 있는 철화백자의 제작이 집중적으로 나타나 이러한 기록과도 부합된다.²³ 특히 17세기 관요 가마터에서는 출토된 백자의 굽 안바닥에 음각된 干支銘을 통해 가마의 운영과 제작 시기가 비교적 상세하게 밝혀지고 있으므로 그 결과가 주목되는 것이다.²⁴ 이에 따르면, 철화백자로 제작된 용준이 확인되는 상림리 가마터의 경우에는 1620년대 중반~1630년대 중반, 선동리 가마터는 1640년대에 그 제작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왔다.

여기에 최근 발굴조사된 경기도 용인의 왕산리 가마터 역시 상림리 가마터에 바로 인접한 지역에 위치하며 관요로 추정되었고, 출토품을 통해 이 일대에서 이미

²² “司饗院以提調意啓曰, 天使宴享時所用畫龍樽, 前日則假畫龍樽用之, 其負持往來之際, 多有脫畫之弊, 故自本院備價, 付與赴京譯官, 使之質來, 非一非再, 而譯官等稱頗, 不爲質來, 以此不得已, 以石間朱起畫, 燔造龍樽, 唐差接見時, 皆以此用之, 今此詔使接待時, 亦以此樽用之(之)意, 敢啓°傳曰, 知道”, 『承政院日記』, 仁祖 12年(1634) 5月 18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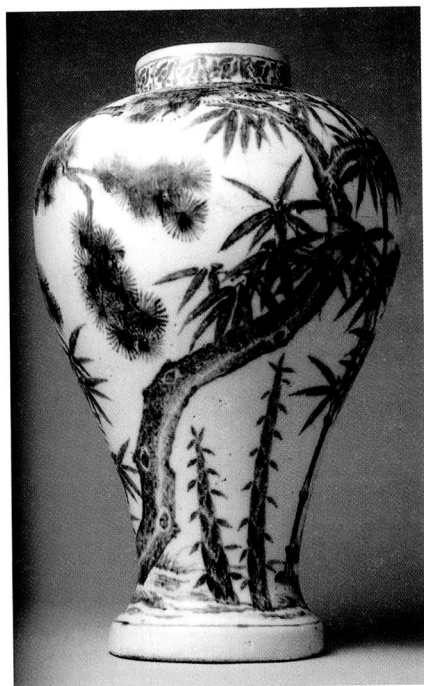
²³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조사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정양모 외, 『朝鮮白磁陶窯址』(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廣州 朝鮮白磁窯址 發掘調査報告書: 樊川里5號·仙東里2, 3號』(1986); 국립중앙박물관·경기도박물관, 『京畿道廣州中央官窯 窯址地表調査報告書 圖版篇』(1998); 『京畿道廣州中央官窯 窯址地表調査報告書 解説篇』(2000); 한국문화유산연구원, 『한국외대 용인캠퍼스 제2기숙사부지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약보고서』(2010) 등.

²⁴ 간지명을 중심으로 17세기 관요 가마터의 운영 시기를 추정한 주요 연구는 다음과 같다. 정양모, 「京畿道 廣州分院 窯址에 대한 編年的 考察」, 『朝鮮白磁陶窯址』(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장기훈, 「朝鮮時代 17世紀 白磁의 研究: 廣州 分院窯址 出土品을 中心으로」(홍익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윤용이, 『韓國陶磁史研究』(문예출판사, 2001); 김영원, 「조선시대 도자기」(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전승창, 「조선 관요의 분포와 운영체계 연구」, 『미술사연구』18(2004); 김정중, 「17世紀 銘文白磁를 통해 본 官窯의 運營時期: 生産·消費遺蹟 出土品을 中心으로」, 『한국고고학보』77(2010) 등.



1620년대 중반부터 철화백자로 용준의 제작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었다. 왕산리 가마터에서 출토된 용 문양의 철화백자는 팽만한 견부 아래로 동체 하부가 좁아들었다가 저부에서 다시 밖으로 벌어지며 굽 부분이 두꺼운 단을 이루는 형태로, 『국조오례의』에서 확인되는 ‘준’과 거의 다름없다^{1, 2}. 이러한 기형은 현전하는 조선 전기 청화백자와도 공통되는 부분으로^{도3}, 17세기 전반의 철화백자 가운데에도 비교적 이른 시기에 해당하는 왕산리 가마터 출토품이 이전 시기로부터 이어지는 준의 형태적 특징을 간직한 ‘용준’임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 무렵의 철화백자 제작 역시 본래의 청화백자를 대신하기에는 ‘부득이’한 조치였으므로, 이후로도 청화백자 제작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는 철화백자와 함께 ‘가화용준’ 역시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특히 1638년 인조와 장렬왕후의 가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나타나는데, 여기에 새로이 확인되는 부분이 있어 주목을 요한다. 즉, 이제까지는 ‘가화용준’과 철화백자 용준의 사용은 앞서 살펴본 1634년의 기록에 따라 ‘가화용준’의 폐단으로 인해 뒤이어 철화백자 용준이 제작되고, 이로써 철화백자가 ‘가화용준’을 대체하는 식으로 여겨져 왔던 것이다. 여기에 1638년의 해당 기록 역시 지금까지 주로 『승정원일기』를 통해서만 소개되어²⁵ ‘가화용준’과 철화



²⁵ “李命雄, 以司饗院官員, 以都提調意啓曰, 嘉禮都監移【缺】畫樽一雙, 白磁青畫酒瓶, 預先燐造, 及時進排事, 知委, 而得聞前例, 回回青, 自戶曹實送, 燐造畫樽【缺】云, 今亦所當依前例, 燐造進

1
경기도 용인 왕산리 가마터
출토품
한국문화유산연구원

2
'준'
『국조오례의』 길례조

3
백자청화홍치2년명송죽문호
1489년 높이 48.5cm
국보 176호
동국대학교박물관

백자의 순차적인 사용 상황을 확인하는 자료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1638년의 해당 행사에 대한 의궤의 기록을 확인한 결과 『승정원일기』의 내용상 빠져 있던 부분을 찾을 수 있었으며, 두 기록에서 간혹 다르게 기술된 부분도 비교 검토할 수 있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규장각 소장의 『인조장렬왕후가례도감의궤』로 1638년의 정황을 다시금 면밀히 파악하고, 당시 조선 왕실의 최상위급 행사라 할 수 있는 왕의 가례를 맞아 청화백자 대신 철화백자로 제작한 용준과 '가화용준'이 동시에 사용되는 것을 다음에서와 같이 보다 분명하게 확인했다.

사용원 도제조가 상고하여 계사하기를, 가례도감에서 이문하여 화준 한 쌍과 白磁靑畫酒海 한 쌍을 미리 번조하여 진배하는 것에 대하여, 듣기로 전례에 회회청을 호조에서 구하여 이송해 화준을 만드는 데에 썼다고 합니다. 이제 또 당연히 전례에 따라 번조 진배하려 하나 번조가 정지된 후 장인이 사망으로 흩어지고 번조도구는 없으며, 겨울은 이미 깊어지고 날씨는 다가오므로 형세가 번조하기 어렵습니다. 본원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보니 석간주 그림 있는 큰 立缸 한 쌍과 백준 한 쌍이 있습니다. 화준은 청 사신의 연향용으로 內用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백준은 체제가 서로 맞지 않고 또 細畫가 있습니다.²⁶ 화준은 또 그 뚜껑이 없습니다. 막중한 대례에 사용하는 것으로 미진한 염려가 있을 듯하나, 달리 마련할 길이 없으므로, 부득이 백준가화 한 쌍과 그림 있는 입항 한 쌍을 옮겨 진배하러

排, 而停燔之後, 匠人四散, 燔具掃如。況當【缺】日期且迫, 勢難燔造。本院所儲推拾, 則只有【缺】畫樽一雙, 大立缸一雙, 畫樽則宴享時所用, 不合於內用, 白樽則體制不齊, 且有調畫, 畫大之缸, 則蓋莫重大禮之用, 似有未盡之患, 他無辦出之路, 勢不得以白樽假畫一雙, 推移進排之意, 惶恐敢啓。傳曰, 知道”, 『承政院日記』, 仁祖 16年(1638) 10月 21日.

²⁶ 이때의 '細畫'가 정확히 무엇을 지칭하는지 기록의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 종이에 붓으로 그림을 그리는 경우, 대개 세화가 '가는 선으로 그린 그림'을 의미하기는 하지만, 이 경우에는 애초에 해당 기물을 '畫樽' 또는 '畫立缸'과 구분하여 '白樽'이라고 칭한 것에서부터 그 의미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일단 해당 기물이 백준으로 지칭된 점으로부터도, 그림이 있더라도 외관상으로는 백준으로 보이는 기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이에 관해 현재로서는 두 가지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다. 한 가지는 '세화' 자체가 가는 선으로 잘 그린 그림을 나타내기보다는 본래 문양이 없는 백준 위로 기존에 가화한 흔적이 남아 드문드문 미미한 선으로 그림이 남아있는 상황을 묘사한 경우이다. 다른 하나는 백자에 음각기법으로 문양을 시문하여 외관상으로 문양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가까이에서만 가는 선으로 표현된 문양이 확인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중국의 원·명대 정덕진 백자에 세밀한 음각문을 시문한 예나, 명청대 백자에 여러 색의 안료를 사용하기 전 유약 아래 먼저 음각으로 윤곽선을 그리는 예들이 있어 참고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음각 기법이 조선시대 백자에서는 墓誌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시문예가 드물다는 점에서 충분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이 같은 추정을 포함한 여러 가능성에 대해서는 향후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는 뜻을 감히 아뢰옵니다.” 하니 임금이 알았다고 하고 교시를 내려 시행하였다.²⁷

이처럼 17세기 전반에 걸쳐 왕실 연향용의 청화백자 용준을 부득이하게나마 ‘가화용준’과 철화백자 용준으로 대신하여 제작하던 상황은 대략 17세기 후반 경에는 완화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 무렵 일단 청화 안료가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었으리라는 추정과 함께,²⁸ 1673년 기록에 보이듯 왕실용 지식에 청화백자의 제작을 당연시하면서도 그보다 삼십여 년 전에는 철화백자로 제작했다는 기록이 나타나 상황의 추이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²⁹ 또한 적어도 경기도 광주 지역의 가마터 조사 결과에 한해 17세기 중반의 선동리 가마터 이후로는 용준에 부합하도록 용 문양을 완전히 갖추어 立壺로 제작된 철화백자의 예가 아직까지 드물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³⁰

27 “司饗院都提調爲相考事院啓辭內, 嘉禮都監移文內, 畫樽一雙白磁青畫酒海一雙預先燔造期進排事, 知委而得聞前例回青白戶曹上下, 燔造畫樽用之云, 今亦似當依舊例燔造進排, 而停燔之後, 匠人四散, 燔具掃如況當, 冬節已深日期且迫, 勢難燔造, 本院所儲收拾, 則只有石間朱畫樽大缸一雙白樽一雙, 而畫樽則清使宴享時所用不合於內用, 白樽則體制不齊且有細畫, 畫大立缸則又無其蓋, 莫重大禮之用似有未盡之患, 而他無辦出之路, 勢不得已以, 白樽假畫一雙畫立缸一雙推移進排之意, 惶恐敢啓, 傳曰知道教是去, 有等以教旨內, 奉審施行事”, 『仁祖莊烈王后嘉禮都監儀軌』, 「三房器皿色」, 仁祖 16年(1638) 10月 25日.

28 17세기 전반에도 조선 전기와 마찬가지로 사행무역을 통해 청화안료의 구입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청과의 조공체제가 정례화되는 1645년 무렵에 이르러서야 이러한 무역 활동도 안정화될 수 있었을 것이며, 이에 따른 청화안료의 구득 역시 17세기 중반 이후에야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졌을 것이다. 송인희, 앞의 글(2008), p.6.

29 “維重曰, 磁器與誌石, 有異, 當以回回青, 書之, 而使未曾書者, 書之, 則筆頭必大, 不能作字…上曰, 朝土中, 無有曾寫者耶, 壽興曰, 正英, 當書之云矣. 正英曰, 臣三十歲前, 果嘗一次書之, 而今則目昏矣. 上曰, 何年耶. 正英曰, 壬午年間矣…其時臣年二十七矣, 書之時, 以石間朱…”, 『承政院日記』, 顯宗 14年(1673) 7月 5日.

30 17세기 후반 이후로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백자철화운룡문호〉와 같이 전세품의 일부 드문 예와 함께, 관요 가마터에서도 용 문양의 철화백자편이 유사리, 신대리, 지월리 등지의 가마터에서 지표조사와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또한 이와 비슷한 시기로 관요의 범위에서는 벗어나 있으나 그와 인접한 가평 하판리 가마터에서도 발굴조사를 통해 용 문양의 철화백자편이 확인되어 주목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가마터에서 확인된 용 문양의 철화백자편들은 기본적으로 동체가 구형으로 둥근 圓壺의 형태를 보인다는 점에서 적어도 ‘준’의 기형적 특징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 입호와는 구분이 필요하다. 또한 해당 가마터에서 확인되는 용 문양이 17세기 전중반의 왕산리와 상림리, 선동리 가마터에서 보이던 입호의 세밀한 용 문양에 비해 전반적으로 간략화된 특징을 보인다는 점에서도 서로 구별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이에 관해서는 송인희, 「조선 17-18세기 철화백자의 특징과 성격: 가마터 출토품을 중심으로」, 『미술사학연구』267(2010)에서 일부 언급한 바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준비 중인 별도의 논고를 통해 고찰할 예정이다. 17세기 후반 이후 철화백자가 확인되는 가마터의 조사 내용에 관해서는 정양모 외, 앞의 책(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국립중앙박물관·경기도박물관, 앞의 책(1998); 앞의 책(2000); 경기도자박물관, 『광주 신

17세기 후반 이후 청화백자의 제작이 늘어나는 것은 18세기 중반에 이르러 다음과 같은 영조대의 기록으로도 추정되어 왔다.

하교하기를, “자기의 그림에는 예전에 석간주를 썼는데, 이제 들으니 회청으로 그린다고 한다. 이것도 사치한 풍습이니, 이 뒤로 용준을 그리는 외에는 일체 엄금하도록 하라.” 하였다.³¹

이 같은 기록은 지금까지 18세기 후반 청화백자의 증가를 증언한 측면에서 주로 다루어져 왔으나, 그와 함께 왕실 내에서 최상위 의례기에 해당하는 용준의 위상이 재차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될 필요가 있다. 즉, 청화백자의 제작을 엄금하는 가운데 여전히 용준에 대해서는 그 제작이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 왕실 행사에서 용준의 사용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이다. 또한 청화백자의 제작이 어려웠던 17세기 전반을 거쳐 그 제작이 확산되어 규제되기에 이르는 18세기 중반에도 용준은 청화백자로 제작되는 것이 기본 규범화되어 있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처럼 중요한 의례기였던 용준이 청화백자로 제작될 수 없었던 때에 ‘가화용준’이 오히려 철화백자보다 앞서 고안되고 지속적으로 채용되었다는 점은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요구하는 바이다.

Ⅲ. ‘가화’ 기법에 대한 검토

‘가화용준’의 시문 기법에 해당하는 ‘가화’의 실체를 명확하게 밝혀주는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그에 대한 추정은 실제적인 구현 가능성을 고려하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즉, 종이나 비단 등 다른 매체에 그림을 그려 기물에 부착했거나, 초벌구이에 먹과 안료로 그림을 그려 재벌번조 없이 사용했거나,³² 무문백자에 문양을 그려 넣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³³ 이에 관련 기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비슷한 시기 왕실용 공예품의 제작 상황에 대한 이해를 토

대리 18호 백자 가마터』(2008); 『가평 하판리 백자가마터』(2009) 등 참고.

³¹ “敎曰, 磁器之畫, 古用石間朱, 今聞以回靑畫之云, 此亦侈風, 此後則畫龍樽外, 一切嚴禁”, 『英祖實錄』, 英祖 30年(1754) 7月 17日.

³² 이상 두 가지 추정은 방병선, 앞의 책(2005), p.171; 주3 참조.

³³ 장기훈, 앞의 글(1998), p.97 및 송인희, 앞의 글(2008), p.5; 주2 참조.

대로 ‘가화용준’에 접근해보고자 한다.

먼저, 초벌구이에 먹과 안료로 그림을 그려 재벌번조 없이 사용했을 것이라는 추정에 대해서는 가장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앞서 살펴본 1638년 인조대 기록에서와 같이, 사용원에 화준 한 쌍이 있으나 용도에 맞지 않아 활용할 수 없으므로 오히려 ‘백준 가화’를 사용하려고 한다는 내용을 통해 이미 완성품 백자를 이용하는 것이 확인되기 때문이다.³⁴ 또한 1625년의 다른 기록에는 사기장이 1/10로 줄어 입역 장인이 부족하다고 하였으나, 다음의 기록에서 보듯이 사신 접대를 맞아 번조 자기를 겨우나마 진상하는 상황도 나타나므로, 굳이 초벌구이의 기물을 연항에 사용했을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이목이 사용원의 말로 아뢰기를, “본원의 외방 사기장으로서 입역하는 사람 수가 해마다 감축되어 남아 있는 자는 겨우 10분의 1인데 사기를 구워 만드는 일은 날마다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각 능전의 제기를 해마다 봉상사에서 독봉하는 수량과 내의원에서 약을 조제할 때에 진배하는 수량이 매우 많은데 물력이 다 고갈되어 진상하는 사기가 겨우 형태만 갖추었습니다. 이처럼 조잡한 이유는 모두 물력이 부족한 소치입니다. 이번에 천사가 왔을 때에도 전후로 도감에 납부한 사기의 수량이 223죽이나 됩니다.”³⁵

다음으로, 종이나 비단에 그림을 그려 기물에 부착하는 방식과 무문백자 위에 직접 그림을 그려 넣는 방식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기록에 보이는 ‘가화’의 표현은 1618년 “不得已假畫而用之”,³⁶ 1625년 “以假畫用之” 및 “不可以假畫用之矣”, “龍樽以假畫用之”라 하고, 이에 “依前畫用”이라고도 하였으며,³⁷ 1626년에도 “每以假畫用之”라 하였으므로,³⁸ ‘그린 것’ 또는 ‘그린다’의 의미를 모두 내포한다. 또한 가화의 폐단을 언급하면서, 1626년에는 “或值雨濕, 則磨濃不成樣,

³⁴ 『仁祖莊烈王后嘉禮都監儀軌』, 「三房器皿色」, 仁祖 16年(1638) 10月 25日條; 주27 참조.

³⁵ “李榮以司饗院言啓曰, 本院外方沙器匠立役之數, 年年減縮, 餘存者僅十分之一, 而沙器燔造之役, 日漸浩大, 如各陵殿祭器, 年年奉常寺督捧之數及內醫院劑藥時進排之數, 不知其幾, 而物力竭乏, 進上沙器僅得成形, 麤陋之故, 皆由物力未敷之所致也. 今番天使時, 沙器前後輸納都監之數, 多至二百二十三竹”, 『承政院日記』, 仁祖 3年(1625) 6月 17日.

³⁶ 『光海君日記』, 光海君 10年(1618) 閏4月 3日條; 주15 참조.

³⁷ 『承政院日記』, 仁祖 3年(1625) 2月 14日條; 주19 참조.

³⁸ 『承政院日記』, 仁祖 4年(1626) 閏6月 13日條; 주20 참조.

莫重宴禮, 所見埋沒”라 하고,³⁹⁾ 1634년에는 “其負持往來之際, 多有脫畫之弊”라 하였는데,⁴⁰⁾ ‘비에 젖는다’거나 ‘그림이 떨어진다’고만 본다면 종이나 비단 등 매체의 존재를 추측할 수도 있겠으나, 이와 더불어 ‘비에 젖어 닳아 진함이 모양을 이루지 못한다’거나 ‘그림이 벗겨진다’고 한다면, 이는 그림 자체가 마모되고 젖어 번지거나, 안료가 표면에서 떨어져 나가 그림이 벗겨지는 것과 같은 현상 역시 추정된다. 즉, ‘畵’를 종이나 비단과 같은 매체 위에 그려진 형상 자체, 문양 자체로서의 ‘그림’으로 파악할 수도 있으므로, 불완전한 안료로 그려진 상태에서는 화면에서 박락되거나 번져 형태가 망가질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조선시대 기록 가운데 도자기 위에 그려진 그림이 벗겨진다는 의미로 1634년의 기록과 같이 ‘脫畵’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그보다 후대 기록이기는 하나, 李喜經(1745~1805 이후)의 『설수외사』에서도 찾을 수 있다. 그 내용은 연경에 갔다가 도자기 위에 그림 그리는 법, 즉 ‘繪磁法’을 배워온 사람의 언급을 전하며, 그 방법으로 생칠에 용뇌를 섞어 그림을 그리면 ‘벗겨지지 않는다’고 적었다.⁴¹⁾

또한, ‘假’의 용례로는 먼저, ‘假家’와 같이 사신 등이 행로에서 잠시 묵거나, 의궤 등에서 보이듯 장인들이 작업 시 묵는 건물을 나타내며, 필요에 따라 임시로 사용한다는 의미가 파악된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사신 접대를 예행하는 습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假天使’⁴²⁾ 등의 표현에서는 원래의 인물을 대신해 그 역할을 맡는 것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되었다. 또한 도자기 외에 다른 공예품의 제작에서도 확인되는데, 먼저 영건의궤 등에서 자주 발견되는 ‘假漆’은 단청 제작 시 草像에 앞서 바탕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부터 본격적인 채색 과정에 앞서 기물에 직접 가하는 준비 작업을 의미한다. 다른 예로는 이미 완성되어 있는 물건 위에 본래와 다른 색의 칠을 가하는 경우에도 이를 ‘가칠’로 표현한 경우가 있는데, 특히 ‘가화용준’이 집중적으로 등장하는 시기에 해당하는 1634년의 다음 기록이 흥미롭다.

상의원이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조사가 올 때 牀卓과 盤器는 전에는 예전 것을 썼습니다. 朱紅이 부서져 내린 곳은 지금 막 보수하였는데, 방금 사용원에서

39 『承政院日記』, 仁祖 4年(1626) 閏6月 13日條; 주20 참조.

40 『承政院日記』, 仁祖 12年(1634) 5月 18日條; 주22 참조.

41 “往年有人入燕, 得繪磁法來云, 生漆和龍腦, 則漆化爲水, 用此入彩而畫之, 卽不脫”, 李喜經, 『雪岫外史』.

42 『中宗實錄』, 中宗 34年(1539) 4月 1日條; 『光海君日記』, 光海君 1年(1609) 4月 16日條; 『承政院日記』, 仁祖 3年(1625) 5月 21日條 등.

보낸 이문을 보니 어전에서 쓸 것은 모두 검은 옷칠을 한 것으로 마련하라고 하였습니다. 옷칠을 하는 것은 들어가는 공력이 아주 크니 몹시 염려스럽습니다. 예전 것을 쓰면서 가칠하면 비용을 아주 많이 줄일 수 있을 테지만, 어전에서 쓰일 막중한 물건을 감히 이렇게 구차하게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계사대로 하라.” 하였다.⁴³

즉, 본래는 검은 칠을 해야 하나 상황이 여의치 않은 탓에 새로 만들지 못하고 주홍칠이 된 완성품에 임시로 칠을 입히는 상황에서 이를 ‘가칠’한다고 표현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용례를 통해서도 ‘가화’라는 의미 역시 ‘가짜 그림’이라기보다는 본래의 ‘畵’, 즉 청화백자의 용 문양은 아니나 이를 대신하는, 임시로 사용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으며, ‘가칠’에서 본다면 오히려 기물을 직접 대상화하는 함의가 가능하다.

‘가화용준’이 완성된 백자 위에 직접 그림을 그렸을 가능성이 높은 것은 본 연구를 통해 새롭게 확인한 1634년의 의궤 기록에서도 추정할 수 있다. 1634년 중국 사신의 영접 내용을 정리한 『영접도감미면색의궤』에는 용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나타난다.

각 일의 연향 시 사용할 화준, 은기 등의 유무를 확인하여 보고하라는 분부에 대하여 사용원에서 답하기를, 화룡준은 전년 천사 때에 正畵를 구하지 못하여 백준에 가화하여 썼습니다. 전례에 따라 가화하여 사용함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당상이 수결하여 이에 따랐다.⁴⁴

곧, 원래 사용해야 하는 청화백자 용준을 ‘정화’라 보고, 이를 대신하는 것으로 백자 준에 ‘가화’를 했다는 것이다. 이는 바로 앞서 살펴본 상황과 반기에 ‘가칠’하는 경우와 상통하여 기물 위에 임시로 그림을 더하는 것으로 ‘가화’를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⁴³ “尙衣院以提調意啓曰, 詔使時牀卓盤器, 前用舊件, 朱紅破落處, 今方修補, 而卽見司饗院移文, 御前所用, 皆以黑漆磨鍊, 着漆所入功力浩大, 極爲可慮. 如用舊件, 仍着假漆, 則省費甚多, 而莫重御前所用, 不敢若是苟艱, 何以爲之, 敢稟. 傳曰, 依啓辭爲之”, 『承政院日記』, 仁祖 12年(1634) 4月 8日.

⁴⁴ “各日宴享時所用, 書樽銀器等, 有無相考牒報亦分付是如乎, 司饗院回報內, 書龍樽段年前天使時, 不得正書白樽假書以行用是如乎, 依前假書行用何如, 堂上手決內依此爲之”, 『迎接都監米麵色儀軌』, 仁祖 12年(1634) 5月 28日.

실제로, ‘가화용준’이 ‘용을 그린다’는 의미의 ‘畫龍’을 포함한다면, ‘가화’는 본래 종이나 비단, 기물의 표면에 모두 화면이 될 수 있다. 용의 문양을 도식의 일부나 견양, 나아가 기우제룡의 용도로 종이에 그리거나 비단에 그리는 것,⁴⁵ 또 깃발이나 방패에 채색한 용을 그리거나 시책이나 표전통, 어좌 등에 금니로 용을 그려 넣는 등⁴⁶ 공예품의 표면에 직접 용 문양을 시문하는 것도 모두 화원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화원이 왕실용의 각종 공예품에 문양을 시문하는, 이른바 ‘起畫’ 작업에 참여했던 것은 현재 남아있는 의궤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되어 왔다.⁴⁷ 그러므로 이처럼 화원들이 이미 기물 자체에 문양을 직접 시문하는 것에 익숙하고, 완성품에 그림을 그리거나 채색을 더하는 것이 공예품의 제작에서 충분히 가능했음을 고려하면, 완성된 백자 위에 안료 등으로 직접 문양을 그려 넣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가능성은 애초에 분원에 내려가는 화원의 역할 자체가 모본을 제작하거나 견양을 전하기도 하지만, 용준과 같은 중요 기물의 시문을 담당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에서도 무게가 실린다.⁴⁸

여기에, ‘가화’의 제작이 기본적으로는 비단과 종이, 직접 기물 위에 시문하는 것으로 모두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용도와 제작 목적에 따르면 용준이 갖는 왕실 공예품으로서의 위상과 ‘가화용준’ 사용 당시 왕실용 공예품 제작에 나타나는 지향성, 그리고 공예품 재질의 위계성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즉, 용준이 왕실 내에서도 최상위 계층으로 사용이 제한되었다는 점, 그리고 ‘가화용준’이 중국의 사신 접대나 왕과 왕세자의 가례와 같은 막중한 국가 행사에서 사용된 점은 이것이 청화백자에는 미치지 못할지라도 이러한 신분적 위상에 크게 저해되지 않는 결과물로

⁴⁵ 『文獻通考』卷77, 郊社考10 雩; “祈雨於北郊, 命攸司自今畫龍祈雨, 依宋朝景德三年頒行儀式行之”, 『太宗實錄』, 太宗 15年(1415) 5月 10日; “祈雨時, 龍山江畫白龍楮子島畫青龍, 以祭, 報祀祭, 無畫龍, 而空位版, 寫紙榜行祀”, 『春官通考』卷42, 吉禮, 雩, 祈雨; 최종성, 『『기우제등록』과 기후 의례』(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pp. 52-55.

⁴⁶ “命工曹, 進節日表筒畫龍見樣, 覽之曰, 今看見樣, 則畫龍有牙齒, 拜表時, 予見表筒, 不畫牙齒, 卽命畫員齎金追及聖節使之行畫之, 聖節使回報, 表筒五龍及楸內一龍, 皆不畫牙齒, 今并加畫而行. 命憲府, 鞫工曹佐郎元志於及畫員以啓, 憲府啓, 志於不能詳察, 請答五十. 畫員楊斐, 令史鄭理杖六十. 命答斐, 理各二十, 志於勿論”, 『世宗實錄』, 世宗 13年(1431) 11月 16日; “戶曹啓曰, 進獻龍文簾席, 天朝人頗好之. 但所畫之龍, 形樣甚粗, 太不相似, 天朝以此爲哂云. 今後令善畫畫師, 畫於紙面, 下送於該道各官, 知會席匠, 使之依樣織紋爲當, (敢啓) 傳曰, 依啓, 體亦小, 十分善畫下送, 使之精造封進”, 『光海君日記』, 光海君 8年(1616) 5月 16日.

⁴⁷ 공예품에 ‘기화’하는 화원의 역할에 대한 주요 연구는 다음과 같다. 박정혜, 「儀軌를 통해서 본 朝鮮時代의 畫員」, 『미술사연구』9(1995); 장경희, 앞의 글(1998); 홍선표, 「화원의 형성과 직무 및 역할」, 『조선화원대전』(삼성미술관 리움 2011) 등.

⁴⁸ 주12, 13 참조.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또한 ‘가화용준’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광해군대에 사신 접대 등의 국가 행사에서 가능한 기존의 법식을 따르고자 노력했던 점이나⁴⁹ 청화백자 제작을 위해 청화안료 취득 역시 지속적으로 모색했던 점 등에서도 ‘가화용준’은 부득이한 교육지책이지만 그러한 지향성에 부합하는 결과물이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종이나 비단에 그림을 그려 기물에 부착하는 것은 왕실용 공예품에서 종이나 비단의 재질적 위계가 실제 어떠했는지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 조선시대 왕실용으로 종이나 비단이 실제 기물을 대신한 경우인 왕실 행사용 造花의 제작과 사용은 흥미로운 시사점을 제공한다. 연향에 사용되는 조화는 신하들이 머리에 꽂는 ‘勸花’와 각종 정자에 참여하는 기녀, 악사 등이 꽂는 ‘首花’, 음식 위에 꽂는 ‘床花’, 화준에 꽂는 ‘준화’로 구분된다. 이러한 조화는 주로 비단과 같은 고급 직물이나 종이로 제작되었는데, 재료의 사용은 행사의 위상과 대상자의 신분제에 따라 분명한 재질적 구분을 두고 이루어졌으며, 비단에 비해 종이는 그 위계가 낮았다. 즉, 종이로 만든 조화인 紙花는 직물이나 실로 만드는 꽃인 絲花가 제작 부담이 높거나 사치스럽게 여겨지는 경우에 대체하거나, 비교적 낮은 계급의 관원을 대상으로 했던 것이다.⁵⁰ 일례로, 1600년 선조의 정비였던 懿仁王后의 喪禮에 이르러,

유인길이 예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습전의 찬품이 매우 성대하여 물력이 공급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때에 조치하기도 어려우니 가짓수는 감하지 않더라도 수량은 편의에 따라 준비하고 다음에 쓸 여러 제물도 모두 이에 의거해서 하도록 하소서. 상화도 銀絲를 써야 하나 역시 제때에 조치하기 어려우니, 지화를 물들여 대용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전교하기를, “윤허한다. 빈전은 계림군 집의 대청에 마련하라.” 하였다.⁵¹

는 기록이 있어, 본래 정해진 고급 직물의 조화 제작이 여의치 않아 종이 조화로 대

49 “禮曹啓曰, 賜祭天使時間禮官齎去儀註七件, 大概依五禮儀 磨鍊勘定, 其中因天使之言, 或有臨時議改處, 此亦前例, 故參酌磨鍊以啓…傳曰…凡禮貌未節, 一依五禮儀爲之. 不可以已往一時詔使所定, 援以爲例. 換鍾禮自前不爲云, 天使臨時間之, 則問禮官善辭告諭, 免致愼怪”, 『光海君日記』, 光海君 1年(1609) 3月 2日.

50 박은주, 「조선 후기 造花의 유형과 변천: 絲花와 紙花를 중심으로」(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pp.10-13, 102-103.

51 “柳寅吉, 以禮曹意啓曰…而饗奠饌品甚盛, 非徒物力難給, 時刻之間, 亦難及措. 色品雖不敢減, 多少之數, 則隨便爲之, 此後諸奠, 皆依此爲之. 床花亦用銀絲, 而亦難及措, 以染紙花代用何如. 傳曰, 允, 殯殿, 則桂林君家大廳爲之”, 『宣祖實錄』, 宣祖 33年(1600) 6月 27日.

제하는 상황을 알 수 있다. 또한 광해군대에서 숙종대에 이르는 1616년부터 1686년까지 왕실 연향인 壽宴 관련 내용을 기록한 『수연등록』에서도 직물과 종이로 만든 조화의 사용 구분이 나타난다. 그중 광해군대인 1616년 수연의 경우, 대전과 중궁전의 진상용으로는 직물 조화의 사용을 명시하였으나, 중궁전의 내외명부 이하에 대해서는 종이로 만든 조화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대상자에 따른 직물과 종이의 재질적 위계를 보였다.⁵²

그러므로 ‘가화용준’의 경우에도 만일 비단이나 종이에 용을 그려 부착한다면, 재질의 위계상 종이보다는 비단이 사용되어야 할 것이나, 비단은 앞서 살펴본 관련 기록 가운데 비에 젖어 닳는다는 등의 묘사와는 맞지 않는다. 기록에 보이는 표현에 어느 정도 부합하며 부착이 용이한 측면에서 종이를 사용했을 수 있다는 추정에 대해서도, 왕실용 공예품으로 용준이 갖는 의의가 적지 않음을 이미 살펴보았고 또 ‘가화용준’의 사용이 주로 중국 사신의 영접과 왕이나 왕세자의 가례 등 위계가 높은 연향에서 확인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작 과정의 편리함이 왕실 내 공예품으로서의 재질과 위상의 불균형을 뛰어넘어 채용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종이나 비단을 기물에 부착하는 것과 기물 위에 직접 그려 넣는 것의 제작 기법에 관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도자 기물에 종이를 부착하는 예로는 용기에 벌레가 끼지 않도록 기원하는 등의 의미로 버선본을 붙이는 민속적 전통이 참고된다.⁵³ 그러나 이는 민간의 풍습으로 왕실 공예품의 제작과 사용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긴다. 또한 그러한 풍습의 시기를 ‘가화’의 출현 시기와 연결지을 수 있는가에 관한 부분도 역시 의문이다. 오히려 시기적 연관성과 무관하게 생각한다면, 19세기 전반의 기록들 가운데 도자 기물 위에 글씨나 그림을 그리는 법을 언급한 내용이 주목될 수 있다.

먼저, 앞서 언급한 바 있는 19세기 초반 이희경의 『설수외사』에서는 연경에서 배워왔다는 사람의 말을 빌려 도자기 위에 그림 그리는 법으로 ‘생칠에 용늪을 섞으면 칠이 물처럼 되고, 이것에 채색을 섞어 그리면 벗겨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⁵⁴ 또한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전반의 인물로, 徐有渠(1764~1845)의 형

⁵² “一曹單子來九月十五日大殿上尊號敎後即行上壽宴…進上絲花鳳內資寺絲勸花禮賓寺花裙工曹…中宮殿上尊號敎後即行上壽宴…絲花鳳內資寺絲勸花禮賓寺花裙工曹, 一參宴內外命婦以下紙勸花禮賓寺…”, 『壽宴謄錄』, 丙辰 六月 二十五日.

⁵³ 송재선, 『우리나라 용기』(동문선, 2004), p.420.

⁵⁴ 주41 참고.

수였던 憑虛閣 李氏(1759~1824)의 저술서로 알려져 있는 『규합총서』에도 아래와 같이 그러한 기록이 보인다.

모양 좋은 질그릇에 먹칠을 진히 하고 아교에 분을 개어 포도를 치거나 풀이나 꽃을 그리고 혹 하엽이나 야청을 칠하고 채화를 하여 들기름에 무명석과 백반을 조금 넣어 뭉긋한 숯불로 끓여 동유를 만들어 위에 고루 고루 칠하여 말려 결으면 화로류는 왜물 같고, 매우 빛나고 폼스럽다. (중략) 금화를 자완에 하려면 마늘즙에 금묘를 섞어 그린 후, 다시 불에 넣으면 영영 떨어지지 않는다. (중략) 흰 사그릇에 지렁이 즙에 채색을 개어 그림 그리면 지지 않는다.⁵⁵

이 외에도, 비슷한 시기 李圭景(1788~1856)의 『오주서종박물고변』에는 도자기를 비롯하여 은기, 동기, 거울면, 옥, 수정, 유리, 돌 등 각종 재료에 글씨를 쓰거나 그림 그리는 법이 소개되어 있어 흥미롭다.⁵⁶ 이 가운데에는 「자기에 그림을 그리는 법」도 있어 다음과 같이 그 방법과 감상을 적었다.

노사, 석회 각 5돈과 녹반, 담반 각 3돈을 진한 잿물에 고르게 섞어 마음대로 그린다. 마르기를 기다렸다가 얼룩을 문질러 씻어내어 원래대로 해둔다. 이를 살피건대 구워진 자기에다 그림을 그렸는데 어찌 자기 위의 조그마한 점이 들여다보이는지 옛 처방이 의심스러우며, 또 과연 이 약으로 구워낼 수 있었을까?⁵⁷

그러므로 이러한 방식이 실제 사용되었는지의 여부는 분명치 않으나 기물 위에 글씨나 그림을 더하는 방법으로는 적어도 19세기 전반 무렵에 이전 시기부터 민간에 전해 내려오는 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실제 전하는 유물들도 조선 후기 백자 묘지 가운데 완성품의 백자 위에 묵서한 예들이 다수 알려져 있으며, 화장용기 또는 明器로도 추정되는 소형 백석제 기물 위에 여러 색의 안료로 그림을 그려 넣은 경우⁵⁸ 역시 안료나 먹을 이용하여 기물 위에 직접 시문한 예로 참고될

⁵⁵ 빙허각 이씨, 정양완 역, 『閨閣叢書』(보진재, 1975), pp.170-173.

⁵⁶ 이규경 지음, 최주 주역, 『五洲書種博物考辨』(학연문화사, 2008).

⁵⁷ 이규경 지음, 최주 주역, 위의 책(2008), p.172.

⁵⁸ 해당 유물은 방형과 원형의 소형 합과 소형의 유개호, 병, 접시, 두꺼비형 연적 등 11점으로 구성되며, 현재 독일의 라이프치히 그라시 민속박물관(GRASSI Museum für völkerkunde zu Leipzig)에 소장되어 있다. 특히 박물관 기록상 이 유물은 1882년부터 국내에서 활동한 뮐렌도르프(Moellendorf)가 1883~1884년경 기증한 것이므로, 제작 시기는 적어도 19세기 후반 이전일

다. 이러한 기록과 유물들을 17세기 전반 ‘가화’의 양상과 직접적으로 연관짓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를 수 있으나, 그 연원과 시기성을 따진다면 적어도 종이를 부착한 용기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검토 가능할 것이다.

IV. 맺음말

17세기 전반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가화용준’은 실제 유물이 남아있지 않고 기록으로만 알려져 있어 실체가 모호하였으나, 그 존재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먼저, 문양이 있는 ‘화준’은 왕실 행사에서 문양이 없는 것에 비하여 높은 위계와 중요도를 갖는 기물이었으므로, 사용층의 위상을 반영하며 신분질서의 표상 및 공고화에도 연관되었다. 이에 임시방편으로나마 문양을 유지하고자 했던 ‘가화용준’의 사용은 왕실용 기물로 문양자기가 갖는 중요성을 보이는 것이다. 동시에, 이러한 왕실용 ‘화준’의 제작과 사용에는 일정한 보수성과 지향성이 내포되어 있었던 만큼, 기존 제작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제작되거나 조형적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문양자기에 대한 제한성을 상대적으로 낮추어 그에 대한 인식에도 전환을 가져올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가화용준’과 관련한 문헌 기록을 재검토하고, 일종의 시문 기법으로 ‘가화’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고자 하였다. 기록의 내용상 ‘가화’는 대략 1618년 이전의 어느 시점에 백자의 시문 기법으로 출현하여 적어도 1638년경까지는 사용되었다. 관련 기록을 통해 볼 때, ‘가화’는 본래의 그림을 대신해 임시로 그리는 것을 의미하므로, 무문의 백자 위에 안료로 그림을 그려 청화백자의 용준을 대신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종이나 비단에 그려 부착하거나 그로써 대체한다면 본래 용준의 규범과 크게 다른 조형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과, 종이나 비단의 재질적 위계가 왕실용 최상위 공예품으로서의 용준의 위상과 맞지 않는다는 점, 또 왕실 공예품에 ‘화룡’, 즉 기면 위에 용 문양을 직접 그리는 작업이 화원의 소임 중 하나였고 애초에 용준의 제작에도 화원이 참여했다는 점 등에서도 추론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처럼 ‘가화용준’은 다시 그 폐단으로 인해 기록상으로는 1634년경, 가마터 조사를 통해서도 17세기 전반에 걸쳐 부득이하게나마 ‘석간주로 기화한’

것이다. 관련 내용은 국립문화재연구소, 『독일 라이프치히 그라시 민속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2013), pp.382-383 참고.

철화백자로 대체가 모색될지언정 그 사용에 충분한 타당성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1638년 무렵의 기록을 통해 보면 ‘가화용준’은 철화백자 용준과 동시에 사용되기도 하므로, 철화백자로 용준이 제작된 이후에도 얼마간 사용이 지속될 정도로 상당한 위상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가화용준’은 왕실용 문양자기로 궁여지책이었다고는 하나 곧바로 청화백자를 대체하여 사용되었다는 점과, ‘가화용준’ 사용의 폐단이 부각된 이후에야 다시 이를 대체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철화백자가 왕실용 기물로 본격 등장하고 또 이들이 동시에 사용되기도 했다는 점에서 도자사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즉, 조선 전기 이래 왕실에서의 문양자기에 대한 수요는 우선적으로 청화안료를 사용하는 것이 분명했으며, 그에 미치지 못하는 철화안료를 수용하는 데에는 그 중간적 단계로 ‘가화’가 필요할 만큼 청화백자에 대한 확고한 지향성이 있었던 것이다. 이는 기록을 통해서도 용준의 제작에 ‘가화’와 철화안료의 사용이 임시적임을 거듭 언급한 점이나, 청화안료의 공급이 어느 정도 가능해진 17세기 후반 이후에는 왕실용 기물로 다시 청화백자를 사용하는 것이 당연시되었다는 점과도 상통한다. 다만, ‘가화’의 단계를 거쳐 철화안료를 사용한 문양자기가 왕실에서 사용되었던 상황은 청화안료 이외의 문양 시문 안료에 대한 인식의 측면에서 중요한 전환이 되었을 것이 분명하며,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이후 조선 후기에 파악되는 문양자기의 저변화와 확산 현상과도 연계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가화’의 존재는 조선시대 백자의 장식 기법에 대하여 청화백자나 철화백자 등으로 파악하는 현재적 관점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가화’로부터 보전대, 기록에서 ‘畵磁’ 또는 ‘花磁’ 정도로 나타나는 문양자기에 대한 당시의 인식 자체가 현재의 분류 체계와는 다를 수 있으며, 이를 이제까지의 이해 방식에서처럼 조형적 결과물로 구별하여 개별적으로 파악한다면 당대적 상황을 규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불가피하다. 그러므로 ‘가화용준’에 관한 이해를 통해 근본적으로 문양자기인 ‘화자’에 대한 당대적 지향과 관점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도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keywords

운룡문호 jar with cloud and dragon design, 왕실 연향 royal ceremony, 청화백자 blue and white porcelain, 철화백자 white porcelain in underglaze iron-brown

투고일 2014년 2월 19일 | 심사일 2014년 3월 14일 | 게재확정일 2014년 4월 14일

사료

- 『光海君日記 Gwanghaegun Ilgi』
『國朝五禮儀序例 Gukjo Oryeui Seorye』
『宣祖實錄 Seonjo Sillok』
『雪岫外史 Seolsuoesa』
『世宗實錄 Sejong Sillok』
『昭顯世子嘉禮都監儀軌 Sohyeonseja Garyedogam Uigwe』
『壽宴膳錄 Suyeondeungrok』
『承政院日記 Seungeongwon Ilgi』
『燕山君日記 Yeonsangun Ilgi』
『迎接都監米麵色儀軌 Yeongjeopdogam Mimyeonsaek Uigwe』
『仁祖莊烈王后嘉禮都監儀軌 Injo Jangryeolwanghu Garyedogam Uigwe』
『中宗實錄 Jungjong Sillok』

보고서

- 국립중앙박물관 · 경기도박물관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 Gyeonggi Provincial Museum, 『京畿道廣州中央官窯 窯址地表調査報告書 Central Government Kiln in Kwangju, Kyönggi-do Province Investigation report on the surface of the kiln sites』, 1998 · 2000.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Ewha Womans University Museum, 『廣州 朝鮮白磁窯址 發掘調査報告書-樊川里5號 · 仙東里2, 3號 Research Report on the Excavation of White Porcelain Kiln Sites of Chosön Dynasty-No.5 Böñch'ön-ni and No. 2, 3 Söndong-ni, Kwangju-gun in Kyönggi-do』, 1986.
한국문화유산연구원 Korea Cultural Heritage Institute, 『한국외대 용인캠퍼스 제2 기숙사부지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약보고서 Brief Report on the Excavation of Cultural Relics on 2nd Dormitory Site in Yongin Campus of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2010.

논저

- 박은주 Park, Eunju, 「조선 후기 造花의 유형과 변천: 絲花와 紙花를 중심으로 The Style and the trasition of JoHwa in the late Joseon Dynasty」,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M. A. thesis, Ewha Womans Univerisity,

2005.

- 박정혜 Park, Junghye, 「儀軌를 통해서 본 朝鮮時代의 畫員 A Study of Court Painters of the Chosun Dynasty Based on Ceremonial Records」, 『미술사연구 *Misulsa Yeon'gu*』9, 1995.
- 방병선 Bang, Byungsun, 『왕조실록을 통해 본 조선도자사 *Wangjosillokeul Tonghaebon Joseon Dojasa*』, 고려대학교출판부 Korea University Press, 2005.
- 방병선 Bang, Byungsun, 「雲龍文 분석을 통해서 본 조선 후기 백자의 편년 체제 A Chronology of late Chosŏn-dynasty Porcelain (17th-19th centurie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Dragon-and-Cloud Motifs」, 『미술사학연구 *Korean Journal of Art History*』220, 1999.
- 송인희 Song, Inhee, 「朝鮮 17~18世紀 鐵畫白磁 研究 A Study on White Porcelains in Underglaze Iron-brown of the 17~18th Centuries Joseon Dynasty」,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M. A.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2008.
- 빙허각 이씨 Bingheogak Yi, 정양완 역 Chung, Yang Wan trans., 『閨閣叢書 *Gyuhapchongseo*』, 보진재 Bojinjae, 1975.
- 이규경 Lee, Gyugyeong, 최주 주역 Choi, Ju trans. & annot., 『오주서종박물고변 *Ojuseojong Bakmulgobyeon*』, 학연문화사 Hakyounmunhwasa, 2008.
- 장경희 Jang, Kyunghee, 「朝鮮王朝 王室嘉禮用 工藝品 研究 A Study on Ceremonial Art Objects of the Chosun Dynasty」, 홍익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h.D. Diss., Hongik University, 1998.
- 장기훈 Chang, Kihoon, 「朝鮮時代 白磁龍樽의 樣式變遷考 Stylistic Changes in the Dragon Design Depicted on White Porcelain Jars during the Chosŏn Dynasty」, 『미술사연구 *Misulsa Yeon'gu*』12, 1998.
- 최공호 Choi, Gongho, 「朝鮮初期의 工藝政策과 그 理念 The Policy on Craft Art and its Concept in the Early Chosŏn Period」, 『미술사학연구 *Korean Journal of Art History*』194 · 195, 1992.
- 홍선표 Hong, Sunpyo, 「화원의 형성과 직무 및 역할 The Emergence, Role, and Activity of Court Painters」, 『조선화원대전 *The Court Painters of Joseon Dynasty*』, 삼성미술관 Leeum Samsung Museum of Art, 2011.

Ga Hwa Yong Jun(假畫龍樽, fake dragon jar)
in Early 17th Century Joseon Dynasty

Song, Inhee

In early 17th century, Joseon dynasty suffered from damages in the successive wars with its neighbors and strived for the restoration, though the process was very slow due to the loss of resources during wartime. The lack of the resources could be found in every part, but was even more serious when it came to the incomplete preparation for the royal ceremonies, the right opportunities for the proper respectfulness that Joseon dynasty had emphasized. What was most difficult to be prepared was Yong Jun(龍樽), or the dragon jar, which was the blue-and-white porcelain jar with dragon design.

In Joseon dynasty, Yong Jun was so important that it was used only for the highest members of the royal court and royal officers used to go down to the royal kilns to supervise the making of Yong Jun. But in early 17th century, with no reserve of Yong Jun nor possibilities of further production for a while, some new solutions were needed to replace it. And the very first solution was using Ga Hwa Yong Jun, meaning the fake dragon jar, which was the white porcelain jar with dragon design drawn on the surface, whereas its original version had dragon design in underglaze blue.

While it received little attention by now, Ga Hwa Yong Jun deserves more attention with its importance. Better assumptions can be made by reviewing every details of the records relevant to its use and examining the realistic possibilities of its techniques. And some newly-found records are useful to increase reliability and concreteness. Therefore, this is practically the first attempt to make deep investigations on Ga Hwa Yong Jun in early 17th century, presenting a new perspective on the ceramic history in Joseon dynasty.

